

# 개인회생채무자 불이익정보 삭제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는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유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금융권에서 계속적 영업이나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대출 등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회생절차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가 1년간 성실하게 변제를 진행한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회생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면, 채무자가 불합리한 대출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여전히 남은기간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한 변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은 회생위원이라는 전문가를 선임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변제 진행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이나 수익활동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만일 채무자가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불성실한 변제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의해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행되는 한, 채무자가 금융권을 통해 불이익 정보가 삭제된 것을 기회로 책임지지 못하고 필요치도 않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 금융권이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대출이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 상태 등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다. 여기에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성실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성실 변제 채무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이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영업상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채무자들 또한 규정의 적용 시점이나 요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K제약·바이오, 신약개발은 계속 해야 한다



기지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올해 4월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국내외에서 기대를 모았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 임상 2상에 실패했다. 시장은 차갑게 반응했고, 신약개발이라는 긴 터널에 갇힌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자금 조달, 상장 폐지 등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후속파이프라인과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계획에도, 신약개발 실패는 기업의 생존을 흔드는 것이 제약·바이오의 냉혹한 현실임이 확인된 사례다.

이후 두 달 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파라텍시스 홀딩스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최대주주는 기존 이정규 대표이사에서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 원 엘엘씨’로, 사명도 ‘파라텍시스 코리아’로 변경된다. 다만, 파라텍시스 홀딩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분야에 특화된 멀티 전략 투자 회사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인’이 더 이상은 전통 제약 산업 내에서만 등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들만 살펴봐도, 화학 기업인 OCI그룹은 제약·바이오 사업으로 꾸준히 눈독을 들여 왔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부광약품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데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오리온이 국내 대표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기업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글로벌 식품·바이오 기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대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제

약·바이오 산업을 통해 신사업을 확장한다. 특히 전통적인 신약개발부터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거나 기업 영향력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러 형태의 자본 유입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다층화하는 긍정적인 흐름일 수 있는 동시에, 일각에선 이중산업 간의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술에서 자본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긴장감도 짙는다.

신약개발 역량이 국가미래를 여는 성장엔진으로 남기 위해선, 더욱 성숙한 기업 문화가 요구된다. 자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옌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신약개발의 실패가 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감을 기대해 본다. 제약·바이오 기업 또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쫓기지 않으면 신약개발을 뒷받침하는 자본과 균형을 이뤄내길 바란다. /mlee236@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7월 14일 (음 6월 20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집안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이니 조심하. 48년생 일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다려보면 결실을 이룬다. 6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72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재물도 늘어난다. 84년생 백 세 넘어 나이까지 즐겁게 살자.

소

37년생 조용히 명상으로 하루를 보낸다. 49년생 돼지띠와의 문서 계약이 잘 성사. 61년생 시간이 갈수록 직장에서 호평을 듣는다. 73년생 건축물 공사장을 지나갈 때 운전 조심하. 85년생 컴퓨터를 배워 사용하니 날아갈 듯 기쁘다.

호랑이

38년생 계단에서 낙상사고를 주의해야. 50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2년생 배우자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활해야. 74년생 가족들과 여행계획을 세우는 편은함아. 86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

토끼

39년생 달리는 도로에서 생각을 집중해서 운전하. 51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다. 63년생 이성과 만남에서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주의. 75년생 갈수록 실력이 향상. 87년생 아직도 건강보험을 안 들었다면 보험을 들자.

용

40년생 모임에서 즐겁게 지낸다. 52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64년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76년생 어려운 일을 극복해나가기 운이 계속 풀려 운수대통이 된다. 88년생 재물로 집안 식구들을 챙기니 흡족. 한 하루

뱀

41년생 날씨가 화창하니 운세도 화창하게 풀려나간다. 53년생 손재수 운이니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싸야 할 것. 65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자. 77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다. 89년생 꽃피고 새가 지자귀니 봄날.

말

42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54년생 건강하게 하루를 지낸다. 66년생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니 조상님의 은덕이다. 78년생 감성이 풍부해지니 시를 쓰면서 사색에 잠겨본다. 9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마라.

양

43년생 집 안 청소로 주변을 깨끗하게. 5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하. 67년생 황재수이니 재운도 있다. 79년생 달리는 도로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손을 내밀지 말도록. 91년생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던 대로 해보자.

원숭이

44년생 무지개를 쫓아가나 잡지하지 않는다. 56년생 거품은 사라지게 되니 현실에 직면하. 68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8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92년생 달은 기울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닭

45년생 기술을 배움에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5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69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81년생 교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 93년생 즐거워지기를 반복하면 몸도 마음도 상쾌세를 탄다.

개

46년생 외출 시에는 안전을 위주로. 5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70년생 찾아온 동생들을 챙기니 효도하는 마음이다. 82년생 고사에 하루를 위해 천일을 훈련한다는 천일용병(千一用兵)이란 말이 있다. 94년생 종일 즐거운 날.

돼지

47년생 일이 천천히 풀려도 밝은 마음으로. 59년생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니 조상님 은덕. 71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 운수가 대통이다. 83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오니 신념으로. 95년생 인생사 흥진비래(興盡悲來)이니 걱정할 것 없을 듯.

## 김상회의四季 생전예수재 의미

과학이 종교이자 신앙이 되어가는 시대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나 존재를 얘기하면 미신으로 치부해버린다. 눈에 보이는 증명만을 과학의 일차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다. 과학은 이미 있는 현상의 메카니즘을 증명해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원칙으로 보자면 실제 있는 현상의 천만분의 일도 규명해내지 못하였다. 정신적 영역의 여러 부사의한 일들을 조상들은 직관과 통찰로서 설명한다.

올해 을사년은 음력 6월에 윤달이 들었음을 계속 얘기해 왔다. 윤달이 들면 조상님들의 묘지 터를 이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명들이 윤달에는 활동을 쉬기 때문에 특별히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서이다. 1년 열두 달을 관장하는 신은 있어도 열세 달을 관장하는 신은 없다 한데서 윤달의 주요 의미로 삼았으니 분명 그 의미가 지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윤달이 들 때는 불가의 대표적 행사 중의 하나는 생전예수재를 지낸다. 이 재는 살아생전 다음 생에 받을 업의 인과응보에 대해 미리 스스로 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생재라 칭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군달, 답달, 여벌 달 또는 공달이라 하여 무탈하다고 생각된 윤달에 조상들을 위한 이장이나 천도재를 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위해서 명을 마치기 전 자신이 사망들에게 재판을 받아 치려야 할 업보를 미리 닦음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 생전예수재는 반드시 치려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왜냐고 묻는다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백일상은 물론 삼년상까지 지내는 것은 물론 49재는 당연한 자손의 도리로 알고 행하였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으니 이 윤달을 어찌 그냥 보낼 것인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10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 2017년3월09일 제1814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7 |   |   | 1 | 3 | 9 | 4 |   |   |
|   |   | 1 |   | 4 | 2 |   |   |   |
|   |   |   | 9 |   |   | 8 | 3 |   |
|   |   |   |   | 8 |   |   |   | 9 |
|   |   | 9 |   |   | 6 |   |   |   |
| 5 |   |   | 6 |   |   |   |   |   |
| 3 | 1 |   |   | 5 |   |   |   |   |
|   |   | 7 | 2 |   | 3 |   |   |   |
|   | 5 | 2 | 8 | 7 |   |   |   | 1 |

|   |   |   |   |   |   |   |   |   |
|---|---|---|---|---|---|---|---|---|
| 1 | 4 | 7 |   |   | 2 |   | 3 |   |
|   |   |   | 7 | 5 | 4 |   |   |   |
|   |   |   |   |   |   |   |   |   |
| 5 | 2 |   |   | 3 |   |   |   | 4 |
|   |   | 4 | 6 |   | 7 | 2 |   |   |
| 6 |   |   | 5 |   |   |   | 8 | 1 |
|   |   |   |   |   |   |   |   |   |
|   |   | 1 | 4 | 3 |   |   |   |   |
|   | 3 |   | 2 |   |   | 6 | 7 | 9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1 | 6 | 7 | 4 | 8 | 2 | 9 | 9 |
| 8 | 9 | 8 | 1 | 9 | 2 | 6 | 7 |
| 2 | 9 | 2 | 9 | 6 | 7 | 8 | 1 |
| 4 | 8 | 8 | 6 | 1 | 9 | 7 | 2 |
| 7 | 1 | 9 | 2 | 9 | 8 | 6 | 2 |
| 6 | 2 | 9 | 8 | 7 | 4 | 8 | 9 |
| 8 | 8 | 1 | 9 | 2 | 6 | 9 | 7 |
| 9 | 2 | 7 | 8 | 9 | 1 | 8 | 6 |
| 9 | 7 | 6 | 8 | 2 | 1 | 9 | 8 |

|   |   |   |   |   |   |   |   |   |
|---|---|---|---|---|---|---|---|---|
| 6 | 2 | 9 | 8 | 1 | 2 | 9 | 8 | 7 |
| 2 | 9 | 8 | 6 | 8 | 7 | 1 | 9 | 2 |
| 8 | 7 | 1 | 9 | 2 | 4 | 2 | 8 | 6 |
| 1 | 8 | 7 | 2 | 9 | 6 | 2 | 9 | 1 |
| 9 | 6 | 2 | 4 | 8 | 9 | 7 | 1 | 8 |
| 7 | 9 | 2 | 8 | 6 | 1 | 8 | 2 | 9 |
| 2 | 2 | 6 | 1 | 7 | 8 | 9 | 8 | 9 |
| 9 | 1 | 7 | 9 | 2 | 8 | 8 | 6 | 2 |
| 8 | 8 | 9 | 2 | 9 | 6 | 2 | 7 | 1 |